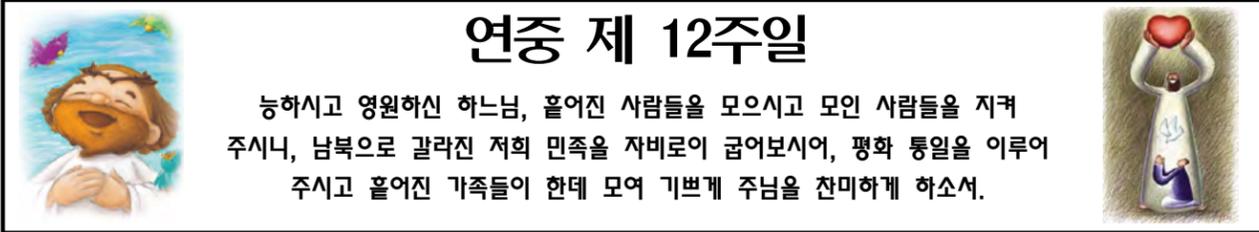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 12주일

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지켜 주시니, 남북으로 갈라진 저희 민족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흩어진 가족들이 한데 모여 기쁘게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네스) 가정
- 이우영(가브리엘), 김수연(율리안나) 가정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묵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은 예수 성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기도와 희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해야겠습니다.

주간 전례

- 6/24(월) :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 6/28(금) : 성 이레네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 6/29(토) :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

썰 기도 모임

- 일시 : 화요일 오후 7시 미사 후 /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회관
 ✎ 묵주기도의 모후(대표 ; 이영민 엘리사벳)와 ‘평화의 모후(대표 ; 정선식 베로니카)’가 각각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썰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공동체, 희생하는 공동체로 거듭 태어납시다.

중남부 지구 사제 모임

- 일시 : 6/24(월) ~ 27(목) 3박4일
 - 장소 :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성당
 ✎ 화, 목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사도 토마스)을 맞이하여 6월 30일 11시 중심미사 때, 조출한 축하 행사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본당이 신부님께 드리는 정성은 공동체의 화합과 끊임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기타

- 6월부터 저녁미사 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로 앞당깁니다.
- 한미체전을 위한 점심식사(6/22)에 도움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로렌스 KU에서 ‘창세기 그룹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39	213	506/502	44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주	이원준(요 한)	정병훈(보니파시오)
	정예찬(미카엘)	안지영(카타리나)
차주	고평원(프란치스코)	안광민(야고보)
	차서은(세라피나)	김준영(요 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안 젤 라)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 네 스)
차주	김수연(율리안나)	김태중(예레미아) 김민정(리 디 아)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희, 안혜진, 김인자, 정연숙, 한순례
차주	다 함 계 (주임신부영명축일잔치)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차주	문석찬(요 셉)	최은미(아 네 스)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두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6/09	75명	365불	1,400불
06/16	95명	417불	1,79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어 온 지도 어느새 60년이 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남북이 지혜를 모아 참된 평화를 이루고, 이산가족들이 서로 자유롭게 만나며, 북한 동포들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성화해설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형 (카라바조, 1607년, 나폴리 카포티몬테 국립 미술관 소장)
 십자가형에 처해진 성 안드레아는 마지막 순간에도 신앙을 고백하며 하느님을 희망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였습니다. 한 줄기 빛이 성 안드레아를 비춥니다. 이 빛은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힌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3-24).

지영현 시은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신명 30,1-5 <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

화 답 송 : 

주 님 흠 어 진 당 신 백 성 을 모 아 들 이 소 서

- 못 민족들아 주님의 말을 들으라 멀리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스라엘을 흠으신 이가 다시 모아들이시어 목동이 양떼를 지키듯이 보살피신다. ◎
- 주님이 야곱을 해방시켰노라. 이스라엘보다 센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해냈노라. 그들은 시온 언덕에서 환성을 울리며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 밀려들리라. ◎
-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근심에 찌든 마음을 위로하여 즐겁게 하리라. 사제들을 잘 먹여 기쁨기가 돌게 하고 내 백성은 좋은 것을 먹여 배부르게 하리라. ◎

제 2 독서 : 에페 4,29-5,2 < 서로 용서하십시오>

- 복음찬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리라. ◎

복 음 : 마태 18,19-22 <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요약)”



한국 천주교회에는 매년 6월이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주일이 있고 남북통일기원미사를 드리지만, 올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은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춘계 주교회의 총회에서 해마다 지내오던 6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달에 특별 기도를 바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통일을 위해 서독정부는 입으로만 통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독지역에 사회간접자본과 물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분단 상황에서도 고속도로 4개, 국도, 국경을 통과하는 철도, 내륙운하는 물론 항공로도 3개나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통일을 지향하며 경제협력과 동서교류를 위한 서독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통일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신뢰를 위해 북의 행동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신뢰의 끈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남북관계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남북관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마르 9,29)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이 통일의 길로 나아가갈 때, 독일교회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사업도 활발하게 펼쳤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기도운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라이프찌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운동이 독일통일의 원동력이 된 ‘월요기도회’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우리의 노력에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참회해야 할 일이 바로 민족의 화해를 비롯한 북한주민들을 위해 바쳐야 할 기도의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과정의 결실입니다.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는 남과 북이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그분의 축복을 구합니다.

남과 북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이 기 현 주교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상생의 길로

정전 60주년을 맞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를 통한 용서와 화해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비롯하여 남북관계와 통일을 논하는 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한 대화와 교류 및 상호협력 없이는 우리 한반도에 쌓여있는 불신과 불안, 더 나아가 전쟁의 위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들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였고, 급기야 핵이라는 카드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남북 갈등의 어떠한 사태에서도 존속시키며 남북경제협력의 큰 상징이 되어왔던 개성공단마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과정과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돌발 사태 등을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일이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이기에 온 민족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인내하며 풀어나가야 합니다.

새 정부에 바랍니다.

그동안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각 정권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북정책을 펼쳐가며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다시금 대결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더욱이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동안 북한의 핵 능력만 향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해야 한다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융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만이 화해와 평화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중물

“천로역정을 쓴 존 번연”

“나는 가끔씩 밧줄을 목에 두른 채 사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1660년대를 싸늘한 감방에 앉아 보내던 존 번연이 자신이 교수형으로 죽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기억을 후에 다시 떠올리며 했던 말입니다. 번연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교사와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포기할 것을 거절한 연고로 투옥되어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수감자 신세로 보냅니다.

존 뉴턴은 그의 생애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유능한 설교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면서 넓은 문을 여시는 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유들이 있다. 만약 존 번연이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설교를 계속했다면 그는 자신의 했던 일의 절반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존 번연이 그곳에서 쓴 ‘천

로역정’은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노인들이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일들을 추구하는 것을 보았을 때였고, 두 번째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편, 아내, 자녀의 죽음 등과 같은 고통을 겪을 때 너무 번민하고 낙담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늘나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유명한 설교자로서 일하다가 60세에 그가 쓴 천로역정처럼 ‘멸망의 도시’를 떠나 오랫동안 소망해왔던 ‘새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3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41.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시련을 이겨낸 뒤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리라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예수님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날부터, 스승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마태 16,21). 베드로는 이러한 예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른 제자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세 증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루카 9,31).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루카 9,35).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하느님으로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심으로써 베드로의 고백을 확인하십니다. 또한 “영광 속에 들어가기”(루카 24,26)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수난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보여 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산 위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고, 율법과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수난을 예고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난은 물론 성부의 뜻이며, 성자께서는 ‘하느님의 종’으로서 이를 행하십니다. 구름은 특히 성령의 현존을 가리킵니다. “삼위께서 모두 나타나셨으니, 성부께서는 목소리로, 성자께서는 인간으로, 성령께서는 빛나는 구름으로 나타나셨다.”

